

# 세계 곳곳 코로나 종식 선언 · · · 韓 '빠아픈 실수' 도드라졌다

**'강력봉쇄' 뉴질랜드·대만·베트남 종식 코앞**  
**"韓, 확진자 줄었을 때 굳히기 들어갔어야"**  
**국내외 전문가들 "뉴질랜드·대만 벤치마킹을"**

전 세계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거나 앞두고 있는 국가들도 등장해 부러움을 사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집계 따르면 한국시간 11일 오후 4시 기준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는 약 736만명이고, 사망자는 약 41만6000명에 이른다. 이처럼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떤 나라들이 '코로나 조기 퇴치'에 성공했고, 그 비결은 무엇일까.



과한데, 이들 모두 완치돼 퇴원했다.

않았고, 봉쇄 정책도 점진적으로 완화했다.

윌리엄 하나지 하버드대 교수는 11일 미국 과학전문매체 파퓰러 사이언스와의 인터뷰에서 "뉴질랜드는 일찍 국경을 폐쇄해 대규모 지역 사회 전파가 이뤄질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평했다. 소셜미디어(SNS) 방송을 통해 수시로 국민과 소통한 저신다 아던 총리의 리더십도 호평을 받았다.

▲ 자국 내 코로나 19 환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발표한 뉴질랜드의 한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 놀고 있다.

고 430명이 되원해 현재 중증 환자는 6명에 불과하다.

**"백신 개발전 종식 선언은 성공 ... 미발견 감염자 많을 수도"**

베트남의 방역 성공은 '기적으로 불린다. 중국과 국경이 접해있고, 인구가 약 9700만명이나 되는데도 사망자가 지금까지 한 명도 나오지 않아서다.

베트남은 사태 초기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하는 한편 해외 입국자들을 14일간 격리 조치했다. 또 도시 간 이동을 제한하는 봉쇄 조치를 내렸다. 코로나 19 검사도 공격적으로 시행했다. 지난 4월 확진 1건당 코로나 19 검사 건수는 996.7

베트남과 대만은 지역사회 감염자가 50여일째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에 10명 안팎의 기존 환자만 완치되면 종식을 선언할 예정이다.

**"뉴질랜드·대만처럼...거리두기와 입국 제한을"**

반면 한국은 '코로나 청정국' 턱말까지 갔다가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양상이다. 지난달 초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명 미만으로 떨어졌으나,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지난달 6일부터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지역사회 감염자는 426명 발생했고, 이 가운데 412명(96.7%)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일각에서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이 시기상조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외 상당수 전문가들은 특히 뉴질랜드와 대만의 방역 성공에 주목한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뉴질랜드는 경찰관·소방관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하곤 집에 머물도록 했고, 대만은 사태 초기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국가 경제 단계를 낮추지

김 교수는 "국내에서 확진자가 확 줄었을 때 고삐를 조여 굳히기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느슨하게 풀어버렸다. 그러다보니 국내 방역은 확진자가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하면서 소모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미국이나 일부 유럽 국가와 달리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뉴질랜드와 대만을 벤치마킹해 다시 일정 기간 강력한 거리 두기로 전환하고, 외국인 입국 제한을 시행해야 한다. 지금이 더 이상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이후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 오히려 더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가 언급한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봉쇄 조치'를 시행한 나라로 꼽힌다. 뉴질랜드에서 처음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 2월 28일이다. 이후 확진자가 28명이던 지난 3월 19일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확진자가 102명으로 늘어난 같은 달 23일엔 필수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상점과 학교의 문을 닫고 행사도 금지했다. 이후에도 약 5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했다.

**슬로베니아·라오스 종식 선언, 뉴질랜드·대만·베트남 코앞에**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한 나라는 우선 뉴질랜드와 슬로베니아가 꼽힌다.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8일 자국 내 확진자가 '0명'이라고 발표했다. 10여 일간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마지막 감염자도 회복되면서다. 뉴질랜드는 이달 15일 코로나 종식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인구 약 482만명인 남반구 섬나라 뉴질랜드에선 지금까지 확진자 1504명, 사망자는 22명 발생했다.

슬로베니아는 지난달 14일 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다. 슬로베니아의 누적 확진자는 1488명, 누적 사망자는 109명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

동남아에서도 종식 선언 국가가 나왔다. 11일(현지시간) 라오스 매체 비엔티안 타임스에 따르면 라오스 역시 이날 종식을 선언했다. 라오스는 59일 연속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또 라오스 정부가 밝힌 누적 확진자는 19명에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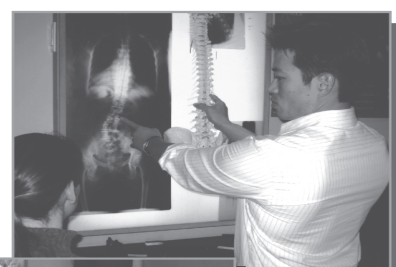


▲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지난 8일 코로나 퇴치를 발표하면서 활짝 웃고 있다.

▲ 대만은 사태 초기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효과를 봤다.

## 윤세웅 척추신경 교정의료원

**DR. MICHAEL YOON**  
**CENTURY CHIROPRACTIC WELLNESS CENT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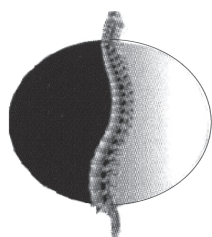


『**뱀** 마디마디가 아프십니까?』

옛말에...  
 굴러가는 돌속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가벼운 운동이나 교정을 지속적으로 받으시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척추신경이상에서 오는 증세:**

두통과 목이 뻐뻐하고  
 팔다리가 무기력하고 저리고,  
 어깨와 허리가 통증이 오고  
 관절마다 신경통이 오고,  
 두통후 각종 후유증이 오는 것 등이  
 척추신경에서 오는 증세입니다.



교통사고 = 척추  
 운동사고 = 관절  
 직장사고 = 근육

**교정**

**건강비법(秘法)은?**

쾌면·쾌식·쾌변이 되어야 합니다.  
 잘먹고 잘자고 잘배출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체의 몸통은 관절마디마디로  
 이어져 있습니다. 마디마디를 운동과 교정으로  
 풀어주셔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교정을 해 줌으로써  
 탈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보낼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해 드립니다.**

**윤세웅 원장 (교정사)**

약력: 미국 샌프란시스코 5년 개업 운영  
 한국 교정사학 지도위원  
 대한 합기도 검무관 캐나다부분 사범  
 현.세기 척추교정의료원 운영

TEL: (403)289.8285

FAX: (403)338.1808

#312A - 3630 BRENTWOOD ROAD N.W. CALGARY AB. T2L1K8

윤세웅 척추신경의는 미국내 굴지의 각종 운송업체, 용역업체 직원들을 정기적으로 교정치료 하는 실력있는 척추신경전문 의입니다.